



성명서

전국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347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6788-3628

제115주년 3·8세계여성의날 성명서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여성들, 각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들 모두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차별에 맞서 싸운 많은 여성들 덕분에 세상은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전대미문의 위기와 도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고 평등의 가치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울어진 사회 구조를 조정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폐지 선언을 신호탄으로 윤석열정권의 차별과 혐오가 사회 곳곳에 뻗어나가면서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올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저임금노동자 중 8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과 승진에서 차별받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까지, 대전환의 시대는 여성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여성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쟁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은 ‘젠더갈등’을 일으킨다며 비난받고 있습니다. 누적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제도적 조치를 역차별이라고 왜곡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초래한 윤석열정부의 인권 시계는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일본의 입장과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인 일본 강제징용 배상 방안은 인권의 존엄을 위해 투쟁해온 강제징용 피해자들까지 짓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와 장애인 등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집단에게는 검사의 칼날을 앞세워 반정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여성 인권의 시간을 다시 미래로 향하게 돌릴 때입니다.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퇴색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이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게도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평등과 존중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이 인간에 대한 존엄과 평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의 정신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염원합니다.

2023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